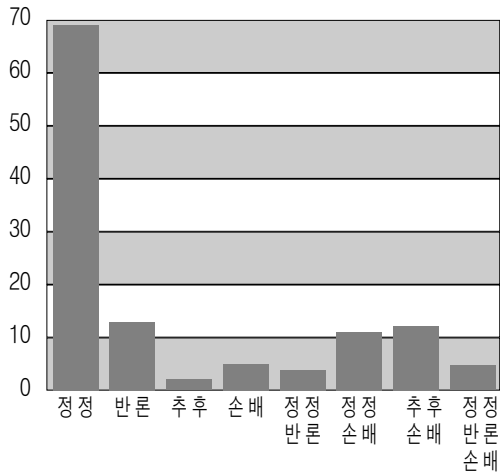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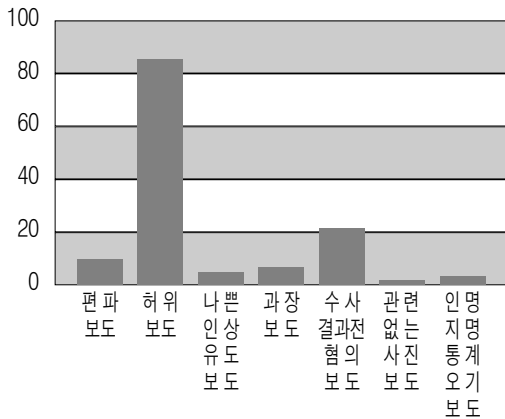


<그림 16> 청구항목



단일청구로는 정정 70건(54.3%), 반론 14건(10.9%), 손해 6건(4.7%), 추후 2건(1.6%) 순으로 나타났다. 병합청구로는 추후+손해 16건(12.4%), 정정+손해 13건(10.1%), 정정+반론+손해 5건(3.9%), 정정+반론 3건(2.3%) 순이었다.

<그림 17> 피해유형



피해유형으로는 허위보도 86건(66.7%), 수사결과 전 혐의보도 22건(17.1%), 편파보도 10건(7.8%), 과장보도 4건(3.1%), 나쁜 인상 유도보도 3건(2.3%), 인명/지명/통계 오기보도 3건(2.3%), 관련 없는 사진보도 1건이었다.

4. 연구결과

1) 연도별 기사건수 변화 및 청구 매체유형 특성

(1) 기사건수

198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언론중재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조정청구는 175건이며,

실제 기사건수는 129건이었다. 조정청구와 기사건수의 차이는 일부 기사에서 병합청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1〉 연도별 청구 기사건수

연도	중재위원회 전체 청구건수	제주중재부 청구건수	기사건수
1981	44		
1982	50		
1983	71		
1984	54		
1985	59		
1986	49		
1987	47		
1988	55		
1989	121	3	3
1990	159	2	2
1991	220	4	4
1992	381	2	2
1993	423	2	2
1994	541	6	6
1995	528	8	8
1996	556	3	3
1997	490	3	3
1998	602	6	6
1999	641	6	6
2000	607	2	2
2001	659	1	1
2002	511	7	7
2003	724	9	9
2004	759	5	5
2005	883	13	10
2006	1,087	11	12
2007	1,043	15	2
2008	954	7	2
2009	1,573	12	21
2010	2,205	48	13
전 체	16,096	175	129

전체 129건 가운데 청구건수가 2005년 10건, 2006년 12건, 2009년 21건, 2010년 13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2007년과 2008년은 각각 2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당해 연도 청구건수는 2007년 15건, 2008년 7건으로 이는 2006년도 후반부 기사가 2007년도에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1989년부터 2004년까지는 각 연도별로 청구건수와 기사건수가 동일하다. 기사 한 건 당 하나의 청구만 있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하나의 기사 당 병합청구가 이루어져 청구건수가 기사건수보다 많이 나타난다. 한편 2006년과 2009년에 예외적으로 청구건수보다 기사건수가 많은 것은, 청구는 2007년과 2010년도에 이루어졌지만 기사보도는 그 이전 연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2) 매체유형

1989년에서 1993년까지는 인쇄매체인 일간지, 주간지, 잡지에서만 청구가 있었다. TV는 1994년에 처음으로 청구가 나타났다. 1996년에서 2002년까지는 일간지에서만 청구가 있었으며,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일간지와 TV 두 매체에서 청구가 있었다.

<표 2> 연도별 청구 매체유형

연도	일간지	주간지	TV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	월간잡지	전체
1989	2(66.7)					1(33.3)	3(100.0)
1990	2(100.0)						2(100.0)
1991	3(75.0)	1(25.0)					4(100.0)
1992	2(100.0)						2(100.0)
1993	2(100.0)						2(100.0)
1994	4(66.7)		1(16.7)			1(16.7)	6(100.0)
1995	7(87.5)		1(12.5)				8(100.0)
1996	3(100.0)						3(100.0)
1997	3(100.0)						3(100.0)
1998	6(100.0)						6(100.0)
1999	6(100.0)						6(100.0)
2000	2(100.0)						2(100.0)
2001	1(100.0)						1(100.0)
2002	7(100.0)						7(100.0)

2003	6(66.7)		3(33.3)				9(100.0)
2004	3(60.0)		2(40.0)				5(100.0)
2005	7(70.0)		3(30.0)				10(100.0)
2006	7(58.3)		3(25.0)	2(16.7)			12(100.0)
2007	2(100.0)						2(100.0)
2008	1(50.0)	1(50.0)					2(100.0)
2009	4(19.0)	1(4.8)	8(38.1)	8(38.1)			21(100.0)
2010	2(15.4)		2(15.4)	4(30.8)	5(38.5)		13(100.0)
전체	82(63.6)	3(2.3)	23(17.8)	14(10.9)	5(3.9)	2(1.6)	129(100.0)

2006년에는 인터넷신문에서 처음으로 청구가 나타났으며, 포털에서는 2010년에 처음으로 청구가 나타났다.

연도별 매체유형의 변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간 일간지 위주의 청구에서 2009년부터는 인터넷신문과 포털 등 온라인미디어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점이다.

2) 매체유형별 뉴스구조 특성

(1) 기사유형

기사유형별로 보면, 스트레이트 108건(83.7%), 가십 10건(7.8%), 심층기획 6건(4.7%), 사설 3건으로 나타났다.

〈표 3〉 매체별 기사유형

언론사명	스트레이트	사설	탐사심층기획보도	가십	기타	전체
제주일보	18(64.3)	1(3.6)	1(3.6)	7(25.0)	1(3.6)	28(100.0)
한라일보	20(83.3)		2(8.3)	2(8.3)		24(100.0)
제민일보	24(85.7)		3(10.7)	1(3.6)		28(100.0)
제주타임스	3(75.0)	1(25.0)				4(100.0)
주간지(제주)	3(100.0)					3(100.0)
KBS제주	8(100.0)					8(100.0)
제주MBC	9(100.0)					9(100.0)
JIBS	4(100.0)					4(100.0)

KCTV	2(100.0)					2(100.0)
인터넷신문	12(100.0)					12(100.0)
포털사이트	5(100.0)					5(100.0)
잡지		1(50.0)			1(50.0)	2(100.0)
전체	108(83.7)	3(2.3)	6(4.7)	10(7.8)	2(1.6)	129(100.0)

스트레이트 기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뉴스 기사유형의 특성상 스트레이트 기사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전체적으로는 일간지에서만 다양한 유형의 기사를 볼 수 있었으며, 여타 모든 매체(잡지 별도)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전부였다. 또한 이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십 10건 가운데 7건은 제주일보였다.

(2) 중심주제

일간지의 경우, 82건의 기사 가운데 행정/정책(25건, 30.5%), 범죄/사고(17건, 20.7%)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간지는 3건 모두 행정/정책(100%) 분야였다.

<표 4> 매체유형별 중심주제

중심주제	일간지	주간지	TV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	월간잡지	전체
정치	5(6.1)						5(3.9)
행정(정책 포함)	25(30.5)	3(100.0)	3(13.0)	1(7.1)			32(24.8)
경제	12(14.6)		3(13.0)	2(14.3)	2(40.0)		19(14.7)
환경	2(2.4)						2(1.6)
교육	11(13.4)		3(13.0)	7(50.0)			21(16.3)
의료	1(1.2)		2(8.7)	2(14.3)			5(3.9)
범죄·사고·재난	17(20.7)		11(47.8)	2(14.3)	3(60.0)		33(25.6)
문화	2(2.4)						2(1.6)
스포츠	2(2.4)						2(1.6)
인물·미담·동정	1(1.2)						1(0.8)
역사	1(1.2)					1(50.0)	2(1.6)
종교	3(3.7)		1(4.3)				4(3.1)
기타						1(50.0)	1(0.8)
전체	82(100.0)	3(100.0)	23(100.0)	14(100.0)	5(100.0)	2(100.0)	129(100.0)

TV는 23건 가운데 범죄·사고·재난(11건, 47.8%)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인터넷신문은 14건 중 7건이 교육(50.0%) 분야였으며, 포털은 5건 중 3건이 범죄·사고·재난(60.0%), 2건이 경제(40.0%)였다.

중심주제로 보면, 일간지에서 정치, 행정/정책, 경제, 환경, 교육, 의료, 범죄·사고·재난, 문화, 스포츠, 인물·미담·동정, 역사, 종교 등 12개 분야에서 각각 청구가 있었다. TV는 행정/정책, 경제, 교육, 의료, 범죄·사고·재난, 종교 등 6개 분야, 인터넷신문은 행정/정책, 경제, 교육, 의료, 범죄·사고·재난 등 5개 분야, 포털사이트는 경제와 범죄·사고·재난 등 2개 분야였다.

(3) 리드가치 부여 여부

일간지의 경우, 가치를 부여한 기사가 67.1%(55건)이었으며, 부여하지 않은 기사는 32.9%(27건)였다. 반면, TV는 가치부여를 한 기사가 30.4%(7건)이고, 하지 않은 기사는 69.6%(16건)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도 가치부여를 한 기사(28.6%, 4건)보다 하지 않은 기사(71.4%, 10건)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 매체유형별 리드가치 부여

매체유형	있다	없다	전체
일간지	55(67.1)	27(32.9)	82(100.0)
주간지	3(100.0)		3(100.0)
TV	7(30.4)	16(69.6)	23(100.0)
인터넷신문	4(28.6)	10(71.4)	14(100.0)
포털사이트		5(100.0)	5(100.0)
월간잡지	2(100.0)		2(100.0)
전체	71(55.0)	58(45.0)	129(100.0)

일간지별로 리드가치 부여는 제주타임스(3건, 75.0%), 한라일보(17건, 70.8%), 제민일보(19건, 67.9%), 제주일보(16건, 57.1%) 순이었다. TV에서는 JIBS가 4건 중 3건(75.0%)의 기사에 리드가치를 부여하였다.

주간지 3건(100%), 월간잡지 2건(100%) 모두는 리드문장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반면 포털사이트는 5건(100%) 모두 가치부여가 없었다.

(4) 보도태도

일간지는 보도태도에서 비판/부정적 기사(45건, 54.9%)가 중립/양비론적 기사(37건, 45.1%)보다 많았다. 제주 주간지(3건)와 월간잡지(2건)의 경우, 모두 비판/부정적 기사였다.

〈표 6〉 매체유형별 보도태도

매체유형	비판/부정적	중립/양비론	전체
일간지	45(54.9)	37(45.1)	82(100.0)
주간지	3(100.0)		3(100.0)
TV	6(26.1)	17(73.9)	23(100.0)
인터넷신문	4(28.6)	10(71.4)	14(100.0)
포털사이트		5(100.0)	5(100.0)
월간잡지	2(100.0)		2(100.0)
전체	60(46.5)	69(53.5)	129(100.0)

이에 반해 TV는 중립/양비론적 기사(17건, 73.9%)가 비판/부정적 기사(6건, 26.1%)보다 많았다. 인터넷신문도 중립/양비론적 기사(10건, 71.4%)가 많았다. 포털의 경우는 5건 모두 중립/양비론적 기사였다.

일간지에서는 비판/부정적 기사가 제주타임스(3건, 75.0%), 한라일보(13건, 54.2%), 제민일보(15건, 53.6%), 제주일보(50.0%) 순으로 나타났다. TV에서는 JIBS만 비판/부정적 기사(3건, 75.0%)가 많이 나타났다. 중립/양비론적 기사는 KCTV(2건, 100%), KBS제주(7건, 87.5%), 제주MBC(7건, 77.8%) 순이었다.

(5) 의견제시 유형

포털사이트(5건, 100%), 주간지(3건, 100%), 월간잡지(2건, 100%) 모두 일방의견제시형이었다. TV에서도 일방의견제시형(20건, 87.0%)이 상반의견제시형(3건, 13.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일간지는 상반의견제시형(39건, 47.6%)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간지 일방의견제시

〈표 7〉 매체유형별 의견제시 유형

매체유형	일방의견제시형	상반의견제시형	전체
일간지	43(52.4)	39(47.6)	82(100.0)
주간지	3(100.0)		3(100.0)
TV	20(87.0)	3(13.0)	23(100.0)
인터넷신문	13(92.9)	1(7.1)	14(100.0)
포털사이트	5(100.0)		5(100.0)
월간잡지	2(100.0)		2(100.0)
전체	86(66.7)	43(33.3)	129(100.0)

형은 43건(52.4%)이었다.

일간지의 상반의견제시는 제민일보(17건, 60.7%), 제주타임스(2건, 50%), 한라일보(11건, 45.8%), 제주일보(9건, 32.1%) 순이었다. TV에서는 JIBS 1건(25%), 제주MBC 2건(22.2%)의 상반의견제시가 있었다. KBS제주와 KCTV에서는 상반의견제시형 기사가 없었다. 포털과 월간잡지에서도 상반의견제시는 없었다. 인터넷신문에서는 1건(8.3%)이 있었다.

(6) 정보원(原) 출처 활용 수

정보원(原) 출처가 나타나지 않는 기사는 14건으로 그 가운데 일간지가 13건(92.9%)이었으며, TV에서 1건이 있었다. 취재원이 나타나지 않는 일간지 13건의 기사는 제주일보 7건, 한라일보 3건, 제민일보 2건, 제주타임스 1건이었다. TV 1건은 KBS제주였다.

〈표 8〉 매체유형별 정보원 출처활용(사람, 기관, 자료 등) 수

구분	나타나지 않음	1건	2건	3건	4건 이상	전체
일간지	13(15.9)	32(39.0)	23(28.0)	12(14.6)	2(2.4)	82(100.0)
주간지		3(100.0)				3(100.0)
TV	1(4.3)	13(56.5)	8(34.8)		1(4.3)	23(100.0)
인터넷신문		10(71.4)	4(28.6)			14(100.0)
포털사이트		5(100.0)				5(100.0)
월간잡지		1(50.0)			1(50.0)	2(100.0)
전체	14(10.9)	64(49.6)	35(27.1)	12(9.3)	4(3.1)	129(100.0)

주간지(3건, 100%)와 포털(5건, 100%)의 경우, 모든 기사의 정보원(原) 출처 활용 수는 1개였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신문(10건, 71.4%), TV(13건, 56.5%), 월간잡지(1건, 50.0%), 일간지(32건, 39.0%) 순이었다.

2개의 정보원(原) 출처 활용은 TV(8건, 34.8%), 인터넷신문(4건, 28.6%), 일간지(23건, 28.0%) 순으로 나타났다. 여타 매체에서는 취재원 2명인 기사는 없었다.

정보원(原) 3개를 활용한 사례는 일간지(12건, 14.6%)에만 나타났다. 정보원(原)이 4명 이상인 경우는 일간지(2건), TV(1건), 잡지(1건)였고, 매체는 한라일보, JIBS, 월간잡지였다.

(7) 정보인용출처

인터넷신문(14건, 100%), 포털사이트(5건, 100%), 월간잡지(2건, 100%)는 모두 정보인용출처가 명확하였다.

<표 9> 매체유형별 정보인용출처 명확 여부

매체유형	명확	불명확	전체
일간지	61(88.4)	8(11.6)	69(100.0)
주간지	2(66.7)	1(33.3)	3(100.0)
TV	20(90.9)	2(9.1)	22(100.0)
인터넷신문	14(100.0)		14(100.0)
포털사이트	5(100.0)		5(100.0)
월간잡지	2(100.0)		2(100.0)
전체	104(90.4)	11(9.6)	115(100.0)

정보인용출처가 불명확한 경우는 일간지가 8건(11.6%), TV 2건(9.1%), 주간지 1건이었다.

(8) 실명·익명 처리

완전실명 기사 26건은 일간지 21건, TV 2건, 인터넷신문 1건, 월간잡지 2건이었다. 일간지 완전실명 기사는 한라일보 8건, 제주일보 6건, 제민일보 6건, 제주타임스 1건이었다. TV는 KBS제주

와 제주MBC가 각각 1건이었고, 인터넷신문 1건은 제주의 소리였다.

〈표 10〉 매체유형별 실명처리 여부

매체유형	완전실명	지역과성명 (한림읍 이모씨)	성명 (이모씨)	암호형인용 (A씨)	완전익명	전체
일간지	21(32.3)	10(15.4)	16(24.6)	9(13.8)	9(13.8)	65(100.0)
주간지				2(100.0)		2(100.0)
TV	2(9.5)	4(19.0)	13(61.9)	1(4.8)	1(4.8)	21(100.0)
인터넷신문	1(7.7)	1(7.7)	5(38.5)	6(46.2)		13(100.0)
포털사이트			1(33.3)	2(66.7)		3(100.0)
월간잡지	2(100.0)					2(100.0)
전체	26(24.5)	15(14.2)	35(33.0)	20(18.9)	10(9.4)	106(100.0)

일간지의 경우, 완전실명(21건, 32.3%), 성명만(16건, 24.6%), 지역과 성명만(10건, 15.4%), 암호형인용(9건, 13.8%), 완전익명(9건, 1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간지는 2건 모두 암호형인용이었다.

TV는 성명만(13건, 61.9%), 완전실명(2건, 9.5%), 지역과 성명만(4건, 19.0%), 암호형인용 1건, 완전익명 1건이었다.

인터넷신문은 암호형인용(6건, 46.2%), 성명만(5건, 38.5%), 완전실명(1건, 7.7%), 지역과 성명만(1건, 7.7%) 순이었다. 포털은 암호형인용 2건, 성명만 1건이었다.

일간지 완전익명 9건은 제주일보 3건, 한라일보 3건, 제민일보 3건으로 나타났다. TV의 경우, 완전익명 1건은 JIBS이다.

(9) 연도별 실·익명 현황

1998년까지는 완전실명 기사가 전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1990년과 1994년 각각 2건의 기사 모두 완전실명기사였다. 1995년은 8건의 기사 가운데 7건이, 1998년은 6건의 기사 중 5건이 완전실명기사였다.

〈표 11〉 연도별 실·익명처리 여부

연 도	완전실명	지역과성명 (한림읍 이모씨)	성명 (이모씨)	암호형인용 (A씨)	완전익명	전체
1989	1	1			1	3
1990	2					2
1991	1			2		3
1992		1				1
1994	2					2
1995	7				1	8
1996	1		1		1	3
1997	1		2			3
1998	5	1				6
1999	2	2	1		1	6
2000			1			1
2001			1			1
2002	2	1		2	1	6
2003			6	2	1	9
2004			2	1	1	4
2005		7	2			9
2006			6	1	2	9
2008				1		1
2009	1	1	9	7	1	19
2010	1	1	4	4		10
전체	26	15	35	20	10	106

완전실명기사는 1999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공인(公人)으로 분류 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완전실명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09년 1건은 당시 도지사 친인척 회사 관련 기사였으며, 2010년 1건은 도내 모 대학 이사장 관련 기사였다.

2003년도 이후부터는 성명만 밝히는 경우와 ‘A씨’와 같은 암호형인용이 많아졌다.

(10) 제목인용

매체별 제목 따옴표는 전체기사 129건 가운데 39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표 12〉 매체유형별 제목 따옴표 인용여부

매체유형	있다	없다	전체
일간지	33(84.6)	49(54.4)	82(63.6)
주간지	1(2.6)	2(2.2)	3(2.3)
TV		23(25.6)	23(17.8)
인터넷신문	5(12.8)	9(10.0)	14(10.9)
포털사이트		5(5.6)	5(3.9)
월간잡지		2(2.2)	2(1.6)
전체	39(100.0)	90(100.0)	129(100.0)

제목 따옴표 인용 기사 39건은 일간지 33건(84.6%), 인터넷신문 5건(12.8%), 주간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는 제민일보 16건, 한라일보 9건, 제주일보 7건, 제주타임스 1건이었다.

(11) 제목인용과 본문일치

제주일보의 제목 따옴표 기사 7건은 본문과 완전일치 5건(71.4%), 부분일치 2건(28.6%)으로 나타났다.

〈표 13〉 제목인용 본문일치 여부

신문유형	완전일치	부분일치	완전불일치	전체
제주일보	5(71.4)	2(28.6)		7(100.0)
한라일보	4(44.4)	5(55.6)		9(100.0)
제민일보	10(62.5)	5(31.3)	1(6.3)	16(100.0)
제주타임스		1(100.0)		1(100.0)
주간지(제주)		1(100.0)		1(100.0)
인터넷신문	3(60.0)	1(20.0)	1(20.0)	5(100.0)
전체	22(56.4)	15(38.5)	2(5.1)	39(100.0)

제민일보는 16건 가운데 완전일치 10건(62.5%), 부분일치 5건(31.3%), 완전불일치 1건이었다. 한라일보는 9건 중 완전일치 4건(44.4%), 부분일치 5건(55.6%)이었다. 제주타임스와 주간지는

각각 부분일치 1건씩이었다.

인터넷신문은 5건 가운데 완전일치 3건(60.0%), 부분일치 1건, 완전불일치 1건으로 나타났다.

3) 청구항목과 피해유형의 특성

(1) 매체유형별 청구 현황

일간지는 청구건수에서 정정보도 57건(69.5%), 반론 11건(13.4%), 손해 3건(3.7%), 추후 1건이었으며, 병합청구인 정정+반론 1건(1.2%), 정정+손해 3건(3.7%), 추후+손해 3건(3.7%), 정정+반론+손해 3건(3.7%)이 있었다. 주간지는 정정 1건, 정정+반론 1건, 정정+반론+손해 1건이었다.

<표 14> 매체유형별 청구항목

매체유형	정정	반론	추후	손해	정정+ 반론	정정+ 손해	추후+ 손해	정정+ 반론+손해	전체
일간지	57(69.5)	11(13.4)	1(1.2)	3(3.7)	1(1.2)	3(3.7)	3(3.7)	3(3.7)	82(100.0)
주간지	1(33.3)				1(33.3)			1(33.3)	3(100.0)
TV	5(21.7)	3(13.0)				8(34.8)	7(30.4)		23(100.0)
인터넷신문	2(14.3)		1(7.1)	1(7.1)	1(7.1)	2(14.3)	6(42.9)	1(7.1)	14(100.0)
포털사이트	3(60.0)			2(40.0)					5(100.0)
월간잡지	2(100.0)								2(100.0)
전체	70(54.3)	14(10.9)	2(1.6)	6(4.7)	3(2.3)	13(10.1)	16(12.4)	5(3.9)	129(100.0)

일간지에서는 제주일보(21건, 77.8%), 제민일보(22건, 78.6%), 제주타임스(3건, 75.0%)에서 정정보도 청구가 많았다. 한라일보(11건, 47.8%)는 다른 일간지들에 비하여 정정보도 청구가 적었으며, 상대적으로 손해가 포함된 병합청구가 많았다.

TV는 정정보도 5건(21.7%), 반론보도 3건(13.0%)이었으며, 병합청구로 정정+손해 8건(34.8%), 추후+손해 7건(30.4%)이었다. KBS제주는 여타 방송사들에 비하여 정정, 반론 대신 손해가 포함된 병합청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인터넷신문은 정정보도 2건(14.3%), 추후보도와 손배가 각각 1건이었으며, 병합청구로 정정+반론 1건(7.1%), 정정+손배 2건(14.3%), 추후+손배 6건(42.9%), 정정+반론+손배 1건이었다. 포털은 정정보도 3건(60.0%), 손배 2건(40.0%)이었다. 월간잡지는 2건 모두 정정보도 청구였다.

매체유형별로 종합해보면, 인쇄매체인 일간지, 주간지, 잡지 등은 정정보도 청구가 많았으며, 전자미디어인 TV, 인터넷신문, 포털 등은 상대적으로 손배와 병합된 청구가 많았다.

(2) 매체유형별 피해유형

일간지는 허위보도 58건(70.7%),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 8건(9.8%), 편파보도 8건(9.8%), 과장보도 4건(4.9%), 오기보도 3건(3.7%), 나쁜 인상 유도보도 1건이었다. 주간지는 3건 모두 허위보도였으며, 월간잡지는 허위보도와 나쁜 인상 유도보도가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표 15〉 매체유형별 피해유형

매체유형	편파보도	허위보도	나쁜인상 유도보도	과장보도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	관련없는 사진·영상보도	인명·지명· 통계·오기보도	전체
일간지	8(9.8)	58(70.7)	1(1.2)	4(4.9)	8(9.8)		3(3.7)	82(100.0)
주간지		3(100.0)						3(100.0)
TV	2(8.7)	12(52.2)	1(4.3)		7(30.4)	1(4.3)		23(100.0)
인터넷신문		7(50.0)			7(50.0)			14(100.0)
포털사이트		5(100.0)						5(100.0)
월간잡지		1(50.0)	1(50.0)					2(100.0)
전체	10(7.8)	86(66.7)	3(2.3)	4(3.1)	22(17.1)	1(0.8)	3(2.3)	129(100.0)

피해유형별로는 일간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V는 허위보도 12건(52.2%),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 7건(30.4%), 편파보도 2건(8.7%), 나쁜 인상 유도보도 1건, 관련 없는 사진보도 1건이었다. TV 간에도 피해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인터넷신문은 허위보도 7건(50.0%),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 7건(50.0%)이 전부였다. 포털은 5건(100%) 모두 허위보도였다.

(3) 연도별 청구항목

1996년까지는 정정보도 청구만 있었다. 89년 3건, 90년 2건, 91년 4건, 92년 2건, 93년 2건, 94년 6건, 95년 8건, 96년 3건 등 모든 기사가 정정보도 청구였다.

<표 16> 연도별 청구항목 변화

연도	정정	반론	추후	손배	정정+ 반론	정정+ 손배	추후+ 손배	정정+ 반론+손배	전체
1989	3								3
1990	2								2
1991	4								4
1992	2								2
1993	2								2
1994	6								6
1995	8								8
1996	3								3
1997	1	2							3
1998	3	2	1						6
1999	6								6
2000		2							2
2001	1								1
2002	6	1							7
2003	7	2							9
2004	2	3							5
2005	6	1			1	2			10
2006	2			3		1	3	3	12
2007	1					1			2
2008								2	2
2009			1		1	6	13		21
2010	5	1		3	1	3			13
전체	70	14	2	6	3	13	16	5	129

반론보도 청구는 1997년(2건)에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추후보도 청구는 1998년(1건)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보도형 병합청구인 정정+반론 1건과 손배형 병합청구인 정정+손배

2건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2006년 이후부터는 손배형청구가 정정과 반론 등의 보도형청구를 앞서기 시작했다. 최근으로 올수록 연도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손배형청구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청구항목별 피해유형 현황

편파보도로 분류한 기사 10건에 대한 청구는 정정보도(8건, 80.0%)와 반론보도(2건, 20.0%)가 전부였다. 오기보도 3건(100%)도 모두 정정보도 청구였다.

허위보도에 대한 86건의 청구 가운데 정정 58건, 반론 7건, 정정+반론 3건 등 일반 청구형 기사는 68건(79.1%)이었으며, 손배 3건, 정정+손배 11건, 정정+반론+손배 4건 등 손배형청구는 18건(21.0%)이다.

〈표 17〉 청구항목별 피해유형

청구항목	편파보도	허위보도	나쁜인상 유도보도	과장보도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	관련없는 사진·영상보도	인명·지명·통계·오기보도	전체
정정	8(80.0)	58(67.4)	1(33.3)				3(100.0)	70(54.3)
반론	2(20.0)	7(8.1)	1(33.3)	3(75.0)		1(100.0)		14(10.9)
추후					2(9.1)			2(1.6)
손배		3(3.5)			3(13.6)			6(4.7)
정정+반론		3(3.5)						3(2.3)
정정+손배		11(12.8)	1(33.3)	1(25.0)				13(10.1)
추후+손배					16(72.7)			16(12.4)
정정+반론+손배		4(4.7)			1(4.5)			5(3.9)
전체	10(100.0)	86(100.0)	3(100.0)	4(100.0)	22(100.0)	1(100.0)	3(100.0)	129(100.0)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는 추후 2건, 손배 3건, 추후+손배 16건, 정정+반론+손배 1건이었다. 이 유형의 경우, 추후 2건을 제외한 20건(90.8%)이 손배형청구 기사였다.

과장보도는 반론(3건, 75.0%)이 가장 많았으며, 나쁜 인상 유도보도는 정정, 반론, 정정+손배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관련 없는 사진기사 1건은 반론청구였다.

(5) 청구항목별 신청인유형

신청인이 개인인 기사 79건 가운데 정정 35건, 반론 11건, 추후 2건, 정정+반론 1건 등 보도형청구는 49건(62.0%)이며, 손배 6건, 정정+손배 6건, 추후+손배 16건, 정정+반론+손배 2건 등 손배형청구는 30건(40.0%)이었다.

<표 18> 청구항목별 신청인유형

청구항목	개인	회사	이익단체· 노조·협회· 학부모회	국가기관	교육기관	종교단체	전체
정정	35(44.3)	21(65.6)	9(81.8)	4(100.0)		1(100.0)	70(54.3)
반론	11(13.9)	3(9.4)					14(10.9)
추후	2(2.5)						2(1.6)
손배	6(7.6)						3(2.3)
정정+반론	1(1.3)	1(3.1)			1(50.0)		5(3.9)
정정+손배	6(7.6)	4(12.5)	2(18.2)		1(50.0)		13(10.1)
추후+손배	16(20.3)						16(12.4)
정정+반론+손배	2(2.5)	3(9.4)					5(3.9)
전체	79(100.0)	32(100.0)	11(100.0)	4(100.0)	2(100.0)	1(100.0)	129(100.0)

신청인 유형이 회사인 경우에는 32건 중 정정 21건, 반론 3건, 정정+반론 1건 등 보도형청구가 25건(78.1%)이었으며, 정정+손배 4건, 정정+반론+손배 3건 등 손배형청구는 7건(21.9%)이었다. 이익단체는 11건 중 정정보도 9건(81.8%)이며, 손배+정정 2건(18.2%)이었다.

국가기관은 4건(100%) 모두 정정보도 청구였고, 종교단체 1건도 정정보도 청구였다. 교육기관은 정정+반론 1건, 정정+손배 1건이었다.

(6) 청구항목별 의견제시 유형

일방의견제시형 기사 86건 가운데 정정 39건, 반론 8건, 추후 2건, 정정+반론 3건 등 보도형청구 기사는 52건(60.5%)이었으며, 손배 5건, 정정+손배 12건, 추후+손배 15건, 정정+반론+손배 2건 등 손배형청구 기사는 34건(39.5%)이었다.

〈표 19〉 청구항목별 의견제시 유형

청구항목	일방의견제시형	상반의견제시형	전체
정정	39(45.3)	31(72.1)	70(54.3)
반론	8(9.3)	6(14.0)	14(10.9)
추후	2(2.3)		2(1.6)
손배	5(5.8)	1(2.3)	6(4.7)
정정+반론	3(3.5)		3(2.3)
정정+손배	12(14.0)	1(2.3)	13(10.1)
추후+손배	15(17.4)	1(2.3)	16(12.4)
정정+반론+손배	2(2.3)	3(7.0)	5(3.9)
전체	86(100.0)	43(100.0)	129(100.0)

상반의견제시형은 기사 43건 중 정정 31건, 반론 6건, 정정+반론 1건 등 보도형청구 기사는 37건(86.1%)이었으며, 손배 1건, 정정+손배 1건, 추후+손배 1건, 정정+반론+손배 3건으로 손배형청구 기사는 6건(13.9%)이었다.

5. 결론과 논의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 보도기사는 언론의 공익성을 실현하는 ‘표현의 자유’와 피해 당사자인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김경호, 2004; 최영재, 2004; 강정홍, 2002; 차재영, 2002; 윤재윤, 2001)하는 저널리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언론중재위 제주중재부에서 다룬 조정신청 대상 보도기사들의 뉴스구조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정신청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은 첫째, 중심주제로 보면 사건·사고·범죄(33건, 25.6%)와 행정/정책(32건, 24.8%)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매체별로 보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일간지에서는 행정/정책이 사건·사고·범죄보다 10% 가량 높게 나타난 반면, TV에서는 사건·사고·범죄가 행정/정책보다 약 30%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50%가 교육분야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체별로 다루는 중심주제의 영역이 다름을 확연하게 보여주며, ‘잘못된 보도’ 논의를 떠나 다양성 측면